

# '4연패' 광주FC, 전북 상대 분위기 반전노린다

내일 전주서 7라운드 대결  
이정호 "용기·자신감 있게  
골 넣을 수 있는 방법 총동원"



이정호 감독 체제로 첫 4연패에 빠진 광주FC가 무승으로 최하위까지 내려앉으며 사령탑이 떠난 전북현대모터스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최근 세 시즌 간 최악의 흐름 속에서 전주 원정 무승 징크스를 깨야 하는 과제도 안았다.

광주는 13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과 하나은행 K리그 1 2024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주말 김천에 이어 다시 한번 적지로 향하는 이정호다.

광주는 벼랑 끝 승부를 치른다. 개막 2연승 직후 4연패를 당한 광주는 총격을 받고 일어나 반등을 노린다. 전북도 코너에 몰린 것은 마찬가지다. 올 시즌 3무 3패로 역대 최악의 출발을 보인 가운데 첫 승을 위해 감독 교체 초강수까지 둔 상태다.

이 가운데 광주의 수비 라인에는 대규모 공백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수문장

김경민과 주장 안영규가 퇴장으로 인한 출전 정지를 받았고, 변준수와 알렉스 포포비치(호주)는 올림픽 대표팀 차출로 이탈했다. 브루노 올리베이라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다.

반면 전북은 주장인 김진수가 퇴장으로 인해 출전 정지를 받은 상태다. 또 에르난데스와 안현범, 이동준 등 주축 공수 자원들이 부상으로 대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승리는 물론 무실점 경기조차 없는 상황에서 악재임이 분명하다.

광주는 심리적인 압박도 이겨내야 한다. 광주는 창단 이후 유독 전주 원정에서 약했다. 통산 전적이 2승 5무 16패로 열세지만 원정 경기에서 1무 10패로 승리가 아예 없었다. 지난해 맞대결에서도 1승 3패로 약세였다.

이정호 감독은 광주만의 색깔을 밀고 나갈 전망이다. 지난 6일 김천전 패배 직후 "자신감 문제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도전자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무모하더라도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골을 먹더라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10연패를 하더라도 밀고 나가보겠다"고 예고했다.

광주는 외인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이



광주FC가 13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4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 FC 선수단이 지난 6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FC와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정호 감독은 김천전에서 가브리엘 티그랑과 포포비치를 선발, 빅토르 자시르 아사니를 교체로 기용하며 활용 가능한 외국인 선수 카드를 모두 꺼냈다.

포포비치가 빠진 상황이지만 가브리엘이 공격 진영에서 여전히 파괴력 있는 움

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빅토르 동료들과 협력하며 첫 공격포인트를 정조준하고 있다. 아사니 역시 몸 상태를 끌어올려 측면에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모습을 되찾았다.

광주의 든든한 지원군인 구단주 강기정

광주시장도 원정길에 오른다. 이번 경기 원정석 티켓이 700여장 판매된 가운데 강 시장도 원정 팬들과 함께 선수단의 전주 원정 징크스 격파를 위해 목청을 높일 예정이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순천시청 양궁 남수현,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 획득

2024 국가대표 1·2차 평가전 3위  
생애 첫 태극마크 달고 메달 도전

순천시청 양궁팀 남수현(사진)이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고 오는 7~8월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다.

남수현은 11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4 양궁 국가대표 2차 평가전에서 4위로 배점 5점을 획득했다.

남수현은 1차 평가전 배점 5점을 합산한 최종 배점 10점으로 여자부 3위를 차지, 개인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나서게 됐다.

올해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순천시청에 입단한 남수현은 지난달 9~14일 열린 3월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종합 배점 38점으로 6위를 기록, 파리올림픽을 향한 희망을 키웠다.

지난달 23~29일 1차 평가전에서 배점 합계 25.5점으로 4위를 기록한 남수현은 이번 2차 평가전에서도 기록없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21.5점으로 4위를 기



록, 최종 배점 1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1위는 임시현(한체대·종합 배점 17.6점), 2위는 전훈영(인천시청·종합 배점 12점)이 각각 차지했다.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은행 테넨양궁단)은 1·2차 평가전 배점 합계 8점으로 5위에 머물며 8년 만의 올림픽 재도전이 무산됐다.

오예진(광주여대)과 이은경(순천시청)도 각각 1·2차 평가전 배점 합계 9점과 4점으로 4위, 8위에 그쳐 올림픽 출전 티켓 획득에 실패했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이 1·2차 평가전 모두 1위에 올라 종합 배점 16점으로 남자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종합 배점 13.6점), 김제덕(예천군청·종합 배점 12점)이 차례로 2~3위에 자리했다.

최동환 기자

## 광주체육중 최문결·이주은, 전국종별선수권 금빛 발차기

광주체육중 태권도부 최문결(3년)과 이주은(2년)이 '2024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광주체육중 태권도부는 지난 2~6일 강원 태백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최문결은 대회 첫 날인 2일 남중3학년부 페더급에 출전해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주은은 대회 셋째 날인 4일 여중2학년부 플라이급에 출전해 압도적인 기량으로 상대 선수를 연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영(1년)은 마지막 날인 6일 여중1

학년부 라이트헤비급 결승전에서 경기 2초를 남기고 몸통 공격을 허용하며 패배 아쉬운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세영·박새롬 광주체육중 태권도 지도자는 "태권도의 저변이 확대되었음에도 우리 학교는 연계 초등학교 육성팀이 없어 선수 발굴에 어려움이 많다"며 "초등부 선수가 중학교 선수가 된다면 좋은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의 미래 또한 더욱 밝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충곤 광주체육중 태권도 감독은 "첫 대회라 선수들이 긴장이 많이 되었을 텐데 지도자 선생님과 함께 훈련일체 되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줘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 '3경기 3승' KIA 네일, 선발 4연승 도전장

14일 대전서 한화전 등판  
3연속 퀄리티 스타트 호투  
19이닝 무볼넷·1자책 성과  
"공격적 투구로 타선 공략"



"경기를 뛰면서 몸상태가 좋아졌음을 느꼈어요. 이번 주말 한화전에서 최고의 경기로 보

답하겠습니다."

KIA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오는 14일 등판 예정인 한화 이글스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호투를 다짐했다. 네일은 이날 한국 무대 데뷔 후 첫 주 2회 등판해 선발 4연승과 4연속 퀄리티 스타트, 무볼넷 등 기록에 도전한다.

네일은 지난 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봉쇄했다. KIA는 네일의 활약에 힘입어 7-2 승리를 거두고 단독 선두를 탈환했다.

네일은 이날 등판 직후 수훈선수 인터뷰를 통해 "경기를 하면서 몸 상태가 괜찮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7이닝 이상은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표 시했다.

그는 이날 시즌 첫 7이닝을 소화하며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 평균자책점을 0.47(19이닝 2실점 1자책점)로 낮추며 단독 1위에 올랐다. 선발 3승을 챙기며 다승 공동 1위,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3회로 이 부문 공동 1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네일은 "KBO 리그 타자들이 루상에서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출루 자제를 막으려고 한다"며 "공격적인 투구를 즐기는 편이고 풀카운트에서도 스트



KIA타이거즈 제임스 네일이 지난 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차전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라이크를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자재로 변형해 던지는 변형 슬라이더인 스위퍼가 공격적이다. 슬라이더와 커브를 합친 슬라이브 같은 움직임까지 가미하면서 타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네일은 "타자에 따라 스위퍼 변형이 가능하다. 속도나 각도에 차이를 주는데 강하거나 천천히, 세우거나 눕혀 던진다"며 "강하게 던질 때는 수평적인 움직임은 줄지만 빠르게 휘어나가며 느리게 던질 때는 횡적인 움직임을 더 크게 준다"고 말했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날 네일의 등판에 맞춰 좌타자 위주의 라인업을 짰지만 네일은 이를 무력화 시켰다. 상대 타선에 맞춰 변형한 스위퍼를 활용하며 7피안타만 내주는 무사사구 투구를 펼쳤다.

네일은 "스위퍼를 던질 때 횡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살리면 좌타자를 상대로도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다"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않아도 옆으로만 잘 움직

여준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주 2회 등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스로 세워놓은 루틴대로 생활을 이어간다면 다음 등판에서도 지금의 기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네일은 "한화는 좋은 타자들이 많고 강한 공격력을 뽐내는 팀으로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연구하겠다"며 "6일 간격과 5일 간격 등판에 맞춰 만들어진 루틴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주 등판하는 한화전 목표는 당연히 팀의 승리다. 시즌 초반 KIA가 단독 선두를 달리며 우승을 향해 순항하는 만큼 개인 성적보다 팀 성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좋은 출발을 했고 팀 역시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이 분위기를 이어서 개인 성적보다 팀 성적 상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